

Global BioTech 포럼 5월 21-23일 개최

세계적인 제약·바이오기업 및 투자기업들과 기술을 교류하고 R&D 투자를 유치하는 Global BioTech 포럼이 5월 21-23일 COEX에서 개최된다.

포럼에서는 미국 16사, 일본 11사 등 해외 50사와 국내 120사가 참가해 유망 개발기술을 소개하고 R&D 파이프라인, 글로벌사업화 전략 등 36개 주제를 발표하며, 350건의 일대일 파트너링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.

특히, 포럼을 통해 일부 벤처캐피탈이 국내 관계기관과의 바이오펀드 조성 등 다양한 전략적 제휴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주목되고 있다.

UBS, Ignite IP, NLV Partners, MPM Capital, Japan Asia Investment 등 금융 및 투자기관 7사도 방한해 국내 제약기업에 대한 투자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.

Johnson & Johnson, Pfizer, Novartis 등 글로벌 제약기업을 비롯해 일본 Shiseido도 참가해 국내 협력파트너를 모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.

소아마비 백신 개발자 솔크 박사가 설립한 미국 솔크연구소를 비롯해 쿠바 CIGB, KAIST 등 전문연구소들도 참가하며, 샌디에이고 바이오협회(BIOCOM)도 바이오 클러스터와의 공동 사업개발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.

또 국내 대형병원의 임상시험 여건에 대한 사업협력 논의도 이루어질 계획이다.

<화학저널 2008/05/20>